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나흘째인 19일 오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제2공장에서 원활한 화재 진화를 위한 잔재를 처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스

금호타이어 공장화재, 76시간 만에 완진 선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난 불이 신고 76시간 만에 모두 꺼졌다. 소방대원과 공장 직원이 다치고, 공장 붕괴 위험에 열원으로 쉽사리 접근할 수 없어 진화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재민도 250여명 가까이 발생하고 물·인적 피해도 나흘 동안 1800여 건이 접수됐다. 화재 원인을 밝히는 현장 감식은 건물 해체와 잔불 정리 이후 진행될 전망이다.

◆건물 붕괴 위험 뚫고 주불 진화...잔불 정리 남아

20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7시11분 금호타이어 2공장 원자재 제련동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20대 직원 1명이 대피 도중 직원 1명이 추락, 머리·허리 등에 중상을 입었다.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2명도 부상을 입었다.

불길이 생고무 20t과 샌드위치 패널 구조 공장 건물 여러 개를 집어삼키고 하루

건물 붕괴 위험 뚫고 주불 진화...잔불 정리만 남아
 인·물적 피해 1800여 건, 노동자 2500명 생계 우려
 현장 감식, 건물 해체·잔불 정리 마친 뒤 진행할 듯

종일 타면서 2차 피해도 발생했다. 생고무 연소에 따른 분진이 인접 지역으로 날렸고 광주 전역에 매캐한 연기 냄새가 퍼지기도 했다.

소방 당국은 화재 이튿날인 18일 오후 진화율 95%를 달성했다고 발표, 국가동원령을 해제하고 소방 대응 단계를 1단계로 낮췄으나 다음날인 19일 새벽 공장 내부에서 불길이 다시 일었다.

공장 2층에 적치된 타이어 원료(고무·철·전) 혼합물 덩어리 200~300여 개가 '공룡알'처럼 묻혀 불타고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원들을 투입해 '공룡알'에 접근,

불을 직접 끄려 했지만 공장 붕괴 위험이 제기돼 무산됐다.

당국은 공장 건물을 해체해 '공룡알'에 접근하기로 결정했다. 공장 건물 해체 직전 대원을 투입해 일부를 끄기도 했다.

눈에 보이는 불을 모두 끈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76시간 여 만인 이날 오전 11시 55분 완진을 선언, 현재 잔불 정리를 위한 공장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인·물적 피해 1800여건, 노동자 2500명 생계는

공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 복구, 현장 노동자들의 공장 정상화 우려도 이어진다.

광주 광산구는 이번 화재로 이재민 137

가구(249명)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화재 관련 피해 신고도 이날 오후 2시 기준 주민 959명에 1831건(인적 929건·물적 670건·기타 232건)으로 집계됐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인근 주민은 어룡동 3만3300여명, 송정1·2동 1만5000여명, 도산·신흥동 1만8000여명 등 총 6만7000여명으로 화재 피해 직·간접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산구는 오는 28일까지 송정보건지소 1층에서 화재 피해 접수를 계속 받기로 해 피해 주민의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장 노동자들도 냉기습을 앓고 있다. 현재 생산직 노동자들은 유급형태로 집에서 대기 상태다. 노사협상 등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2면에 계속) /박도일 기자

대선공약보니, 현안 반영 나열식... 참신함 부족 후보마다 지역 현안사업 위주 공약 선정 새로운 성장동력 없어 공약 참신성 빈약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가 1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마다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지역별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역현안을 담아내는 수준에 그쳐 분별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 지역발전을 위한 청사진이지만 그동안 불발된 공약이 많았던 만큼 후보의 실천 의지가 어느정도 있는가에 따라 유권자의 표심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 후보 중 광주·전남 지역공약을 가장 활발하게 제시하고 있는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이재명 후보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호남이 국가의 보루"라고 강조하며 호남권 메가시티 실현을 중심으로 한 지역공약을 발표했다.

광주는 인공지능(AI)과 미래 모빌리티, 아시아 콘텐츠 거점도시, 광역철도망 구축 등 대표 공약의 윤곽을 제시했다.

전남은 최대 현안인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포함해 신재생에너지 메카 조성, 여수산단 친환경·고부가 화학산업 전환 등을 공약했다.

이어 이 후보는 지난 11일 화순·강진·해남·영암을 차례로 방문해 경쟁투어를 한데 이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5·18민주화운동 전야제와 기념식에 참석하며 광주 군공항 이전이나 광주 AI 집적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구체화된 공약과 실천 의지를 표명했다.

민주당 광주·전남선대위는 이날 광주 5개 구와 전남 22개 시·군 등 27개 기초자치단체별로 5~7개씩 지역 수요에 맞춘 '우리동네 공약'도 발표했다.

공약을 지역 수요에 맞추다보니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보다 자치단체 현안사업 위주로 꾸러졌다. 지역 현안사업이 대선 공약에 반영되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관건은 실천 의지다.

양부남 민주당 광주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은 "세 번의 민주당 정부에 호남민들이 전폭적인 지원을 했으나 민주당이 한 게 뭐가 있느냐 지적이 많다"며 "이번 공약은 지역민이 원하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것만을 모은 것으로 후보의 해결 의지가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대선 레이스에 늦게 뛰어든다보니 지역공약 대부분이 지역 현안사업으로 채워졌고 홍보하는 데도 소극적인 모습이다.

광주는 AI 생태계 표준도시 조성, 북항소핑몰 예정지 일대 교통인프라 확보, 광주특화 교육·창업·실증도시 구현, 건강학 도시 수원원 확보,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광주~대구 달빛철도 및 호남고속도로 확장 추진, 서남권 에너지 메가시티 구축을 제시했다.

전남은 국립의과대학 설립, 초광역 교통망 확충, 농생명 산업도시 건설, 신재생에너지 신도시 조성, 우주발사체산업 융복합클러스터 조성, 무안국제공항 안전인프라 구축, K-섬 메카 서남해안 해양 문화·관광벨트 조성 등을 담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은 없고 서로 엇비슷해 변별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언론과 시민들에게 공약을 적극 알리고 있는 데 반해 소극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어 대조된다.

국민의힘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페널티를 안고 있어 예전의 서진정책 같은 호남에 대한 적극적인 구애 모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후가를 내고 서울에서 광주에 내려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박은식 광주 동남을 당협위원장은 "지역민들이 국민의힘과 접촉 자체를 피하고 있다. 지금은 후보 단일화가 우선"이라며 녹록지 않은 선거운동을 대변했다.(3면에 계속) /이승원 기자

APEC 2025 KOREA

가장 한국적인 도시,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기억할 경주가 됩니다.
역대 가장 완벽한 APEC, 경상북도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경상북도 경주시